

‘모름다움’을 가진 그들에게 환대를

- 『딸기 이론』(김숨, 2026)을 읽고

유명환 선전위원

나는 사회학 전공자로서 사람들이 종종 내 전공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물을 때면 난 처해지곤 한다. 사회학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학문이다. 나는 사회학에 대한 개념 정의 중 막스 베버의 정의가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회학을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행위의 경과와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학문”으로 정의했다. 즉 현시대의 모순을 잘 설명해주는 도구, 이게 바로 사회학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다. 2026년, 여기 ‘딸기 이론’이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먹거리인 ‘딸기’를 통해 역 추적해 올라간 결과, 우리는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

2026년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시대 상황의 질곡이 발현되는 양상은 다양하다. 노동자, 여성, 난민, 장애인, 빈민, 성소수자, 기후 위기, 동물 등.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주 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민이 겪는 차별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본다. 즉, 여러 차별 요인이 한 사람에게 중첩되어 서로 결합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김숨 작가는 이를 주인공인 미얀마 여성 이주 노동자 ‘샤빠’의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추상’은 사물의 표면을 날려 본디의 순수한 속성을 찾아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배웠어. 그렇다면 내게 가해진 추상은 비뚤어진 추상이야. 내게 있었을 본디의 순수한 속성은 날려 버리고 국적과 피부색, 성별, 이주 노동자라는 표면만 남겨 놓았으니 말이야.”

내가 이주 노동자 문제를 깊게 고민하게 된 계기는 2022년 2학기 학부에서 들었던 ‘국제이주와 다문화사회’라는 수업을 통해서였다. 당시 나는 『깃잎 투쟁기』(우춘희, 2022)를 읽고 있었고, 이 내용에서 실마리를 얻어 ‘농촌지역 고용허가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말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 ‘이주 노동자’ 의제가 내 관심 밖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사는 내게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더 가까운 다른 의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올해 5월호 <일

터>를 준비하면서 난민 문제와 관련한 연극 「더 정글(THE JUNGLE)」을 관람했고, 6월호를 준비하면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인터뷰에 동행했으며, <일터>의 ‘아리셀 참사 2주기’ 특집을 읽었다. 그를 계기로, 다시 ‘이주 노동자’ 의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과 같이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2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더 나아졌는가? 전국 계절노동자 수가 2022년 1만 7천 명에서 2026년 10만 5천 명으로 4년 동안 6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¹⁾ 한국이 점점 다문화사회로 이행해 가면서 ‘이주 노동자’ 의제가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나는 간과하고 있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주 노동자’ 의제를 사회과학 서적이 아닌 문학이라는 장르로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는 사회과학의 서술 방식이 주는 힘을 믿는다. ‘계급’, ‘갈등’, ‘권력’ 등의 단어는 보편 언어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러티브(Narrative)’의 부재다. 문학은 등장인물의 서사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닌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가진 주체로서 ‘개인’을 내세운다. 이 책은 ‘2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해, 미얀마 여성 이주 노동자 ‘샤빠’가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 ‘보파’에게 보내는 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샤빠’, ‘보파’, ‘뚜라’, ‘완나’, ‘필리핀 여자에’ 등의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이야기,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삶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처럼 내러티브가 더해진 보편 언어는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얻게 되고, 인간이 진정한 인간으로 남기 위해 투쟁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더욱 뚜렷해진다.

김숨 작가는 러·우 전쟁, 미얀마 내전, 킬링필드, 로힝야족 학살 등과 같은 역사적·동시대적 사건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자칫 다양한 사건이 작위적으로 인용됨으로 인해 어색해지거나 독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역치를 결코 넘지 않는다. 그 긴장의 끈에서 김숨 작가의 고민이 역력히 느껴졌다. 특히 작가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 의제 공론화의 도화선이 되었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 고 ‘속행’ 사망 사건(2020년 12월 20일 발생)을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다. 3부의 ‘절대영도’는 해당 사건을 독립적인 주제로 하여 구성된 장이다. 작가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 ‘절대영도’와 고 ‘속행’의 사망 사건을 중첩시킨다. “물리학에서 절대영도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그래서 아무리 낮아져도 도달할 수 없는 가상의 온도를 말해. ... 그날 밤, 검은 비닐하우스는 절대영도였어. ... 절대

1) 김수진, “‘에어컨 있어도 일 접었는데’...계절노동자가 쉴 그들은 없었다”, CBS노컷뉴스, 2026.08.24.
<https://nocutnews.co.kr/news/6566552>

영도에 도달하고 있는 검은 비닐하우스에는 속행이 잠들어 있어.” 사건 당시 경기도 포천 지역은 한파 경보가 발령되어 있었고, 체감온도는 영하 20℃까지 떨어져 있었다. 당시 이주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숙소에 전기와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워.’ … ‘얼어 죽으면 고쳐 주려나?’ … ‘누가 나 좀 데리러 와 줘.’”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방문객/정현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주 노동자는 이방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왔다. 문득 정현중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김숨 작가는 고 신영복 교수님이 말했던 ‘모름다움’을 인용하면서 “‘모름다움’은 ‘보지 못한 데서 생겨난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썼다. 자신이 만났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무지와 무감각을 반성하게 된다는 인터뷰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²⁾ 김숨 작가의 정의처럼 우리의 감각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의 마음을 바람처럼 조금이라도 더듬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모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건 필경 환대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2) 김도연, “‘딸기밭 이주노동자’ 이름표 너머 한 사람의 삶을 담다”, 동아일보, 2026.06.14.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60614/134097471/1>